

【개강특강】

전라도의 아름다움

— 그 정서와 정신 —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

1

제 고장 자랑이라면 뉘에겐들 없겠는가. 조상 숨결 어려 있고 제 잔뼈 굵어진 곳. 뿐인가, 겨레불이들 앞날 무궁한 터전인 것을…….

한 친구 찻종 놓고
— ‘전북 자랑 듣자’

하네. 말머리 막상 풀자니 왜 이리 막연한가. 잠시간 멈칫거리다 하나 둘 꼬아 보네.

풍류 멋 자연 산수 어느 길 먼저 들까. 기후 풍토 인성 기품 뒤를 이어 따라드네. 족출한 자랑거리들 차차 이어 나가리라

— ‘자랑쟁이 흠이 많다’

속말을 모르랴만, 친구의 청이겠다 고장 자랑 흠이 되랴. 모처럼 생겨보는 자랑으로 내고장 궁지 가꾸리라.

오늘 자랑에는 내일 빛이 따라야지, 그 빛을 잃게 되면

—만사휴의(萬事休矣)

아니겠나, 자 이제, 내 고장 전라북도 자랑거리 들어보리.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옛 이야기 들춰보면,

—‘본래 변한(卍韓/馬韓)땅, 그 뒤 백제 땅, 나당(羅唐)의 도독부(都督府) 거쳐 신라가 병합하자, 견훤왕(甄萱王) 떨쳐 일어 후백제국 세웠으나 ‘끝내는 고려천지 되어 성종 14년(996) 강남도(江南道)의 이름 얻고 현종 9년(1018)에는 남쪽 땅 해양도(海洋島)를 합쳐 전라도라 일컬어져 그 이름 그대로 조선(朝鮮)에 들었다.’

했네. 전라도 서울은 내리 오늘의 전주였지.

그 후 어찌 됐나, 『한국땅이름총람』(1981) 살펴보면,

—‘전라도는 1896년 새로이 실시된 도제(道制)로 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었다.’

고 했네. 오늘의 전북은 14개 시군(6개시, 8개군) 구역을 안고 있네.

그 면적 8,050km², 인구는 200만 명을 헤아리고, 아리따게 놓일 자리 놓인 산과 들·내와 강·바다 더불어, 조상들 삶의 멋 내림으로 일가꾸어 왔다네.

[3]

전북의 산수 경계 어떻게 벌여 있나, 옛노래 「팔역가(八域歌)」를 들어보면

—‘전라도 전주영(全州營)은 호남에 가려지(佳麗地)라. 지리산 웅반(雄盤)하고 금강(錦江)수 흘러 있다. 김제 만경 너른 들과 능주 나주 고운 물색(物色) 풍속이 변화하고 인물도 화려하다. 제주에 한라산은 영주산(瀛州山) 이름 좋고 남원에 광한루는 오작교 거기로다.’

큰 버리만을 말하였네, 그러나 이 버릿줄 거나린 오밀조밀 어떻다고.

시인 신석정(辛夕汀)은 우리 고장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령(蘆嶺)의 내림으로 돌렸지,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가로막은 경상도나 차령산맥을 안고 있는 충청도 보다는 노령산맥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라도가 한결 아늑하고 온난한 고장이다.’

창밖의 저 능선(稜線)을 보시게. 어머니의 젖가슴 아닌가.

노령의 줄기가 감싸 이룬 산이 품안에 들어 보신 적 있다. 지리산·내장산·덕유산·변산·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강천산·장안산, 또 생각해 보시게. 어느 산 어느 철에 들거나 그 품안 아늑하고 안온한 기쁨 아니던가.

산수(山水)하면 자연(自然)을, 자연하면 산수를, 또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

언제부터 일러왔다. 으레 산수화 그림에도 산에 물이 따르렀다.

시인 조운(曹雲)은 김제 만경 들을 보고,

—‘들이 바다두곤 넓어 눈이 모자라 못 보겠다. 이제(8·15 직후) 우리 거지 꿈 같은 일이다. 동진수(東津水) 9백 굽이쳐 흰 젓처럼 흐르고...’

의 환희였다네. 전북 땅 젓줄인 강이야 동진강뿐이겠나.

만경강·섬진강·적성강·장수강도, 굽이굽이 셋강들 — 요천·감곡천·고부

천 · 시산천 · 구량천 · 남대천 · 옥천 · 계림천 · 두월천 · 원평천 · 둔남천 · 오수천 · 삼천천 · 소양천 · 오목천 · 학선천 · 추천 · 한내 · 모두내 — 합수하여, 전북 땅 고르게 흘러 젖줄 이뤄 왔다네.

이 터전 나는 물산도 갖가지 가멸찾거니,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는

—‘호남전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서남방 연해지방에는 해산물 · 메벼 · 명주 · 실 · 목화 · 모시 · 닥나무 · 대나무 · 굴 · 유자 · 감의 이익이 있다. 이곳의 풍속이 노래와 여색(女色)을 즐기고 부함과 사치를 숭상하여 사람들이 흔히 영리하나 경박하여 과거(科擧)공부를 경시하는 까닭에 벼슬에 현달한 사람이 적었다.’

고 하였네. 조상들,

—자작자활(自作自活)

로 악착같이 앓았던 거야.

—‘의식이 족하면 명예를 중히 여기고 수치를 안다.(衣食足而知榮辱)’

는 말 있지 않던가. 전북 땅 조상들은 사람살이 · 세상살이에 있어, 삶의 질 그 맛과 멋을 으뜸으로 쳤던 거야.

삶의 질이라면 무엇이겠는가. 맑은 바람의 흐름 같은

—風流

를 가까이 하고,

—불의 · 부정(不義 · 不正)

을 멀리함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전북 땅 예술의 꽃도 항쟁의 헛불도 모두 삶의 질을 위함이었네.

4

친구여, 그대 일찍이

—풍전세류(風前細柳)

라는 말 들었던가. 이 말을 흔히 『택리지』 ‘8도 인심’ 조에 있는 ‘전라도는 오로지 교활함을 숭상하여 그른 일에 움직이기 쉽다’로 풀이하는 것 들었던가. 이 말은 도선국사(道詵國師)가 말한

—사풍세류(斜風細柳)

와는 엉뚱한 풀이라네.

전라도 사람들의 인성기미 알기야, 음양지리(陰陽地理) · 풍수지리(風水地理)

에 밝았다는, 전라도 영암 출신 도선국사에 더할 사람 있겠는가.

‘봄바람에 풀어 늘인 벼들 실가지’를 말한 것은, 황명걸(黃命杰) 시인의 벼들 노래였던가,

—‘부드러운 벼들가지는 꺾일 듯 주저앉은 듯 쏟아져 내리다 추슬러 오르며
춤추나니 미친 바람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검은 바람을 용맹스럽게 이기노
라.’

바로 이 벼들의 외유내강한 풍류성을 들어 말한 것일래.

—사풍세류.

이 얼마나 시적·회화적 표현인가. 이 풍류성으로 하여 전라도 선인들이 가
꾸어 온, 전북 땅 예술문화도 백화난만의 역사였다네.

먼 삼국시대 백제의 노래들, <지리산가>·<선운산가>·<방등산곡>·<정읍
사>, 이 모두 섬연(纖妍)한 여성들의 노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게.

부덕·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명도 따르지 않겠다는 지리산녀의 저 노래,
싸움터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선운산에 올라가 그리며 불렀다는 저 노
래, 도적들에게 붙잡혀 간 한 여인이 구하러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한 타
령이었다는 「방등산곡」 등은 아쉽게도 그 가사를 잃었으나,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
롱디리. 저재 내려신고요, 어기야 존드]를 드드]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
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가는 드] 점그롤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
롱디리.’

가사가 전하는 「정읍사」만을 놓고 보더라도, 여인의 외유내강한 마음의 멋
돋지 않은가.

이 노래에는 ‘망부석(望夫石)’전설도 따르고 있거니, 『동국여지승람』 정읍현의
고적(古蹟)조에,

—‘현의 한 사람 장사하러 떠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아내가 산의
돌 위에 올라서 기다리며, 그 남편이 혹 밤길을 다니다가 헤침을 당하지나
않았는가 걱정되어, 진흙탕 물의 더러움을 의탁하여 노래를 지으니, 그 곡
을 <정읍>이라 한다.’

고 했네. 아무런 역정풀이 없는 이 여인의 마음 어떠한가.

조선조 문학도 전라도 없었다며 어찌 되었을까. 우선 가사·시조·소설만을
생각해도, 그 싹을 그 잎을 그 꽃을 티우고 피운 건 전라도였어.

여기에 어찌 다 그 작품을 매거할 수 있겠나,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 황
희(黃喜)의 ‘강호가풍(江湖歌風), 송순(宋純)의 『을사사화가』, 정철(鄭澈)의 『장

진주사』, 이밖에 『춘향전』, 『홍부전』 옛소설 만으로도, 우리의 문학사에 기여한 전라도 구실 아시리.

5

친구여, 우리 전북의 문학·음악·미술 등 예술의 전통이 삶의 질을 추구한 이 고장, 때로는 항거의 횃불 올림도 삶의 질 위함이었다네.

‘전라도는 반역향(反逆鄉)’이란 말, 이 말 같잖은 말, 그대 혹 들었던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위한 항거를 반역이라 할 것인가.

차령산맥이 품어 아늑한 땅, 후백제 제 나라 제 땅을 지키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진충(盡忠)을 배역(背逆)이라 한 것은 그야말로 『훈요십조(訓要十條)』의 배리(背理)가 아니겠나.

기축년(己丑年, 1589) 정여립(鄭汝立)의 모반(謀叛)이란 또 무엇인가, 호남땅 굳게 지켜 나라 반석 다지자는 것을, 엉뚱한,

—목자망 진읍흥(木子亡 奠邑興)

의 참요를 끌어넣고, 패거리 서인(西人)들은 정여립 동인(東人)세력 휘몰이로 쓸어넣고,

—반역향

저 말로 전라도를 농간 한 것 아니던가.

임진왜란(1592-1598) 7년 전쟁 전라도 창의(倡義) 군량(軍糧) 아니더면, 또 남원·이치·금산의 저 혈전(血戰) 없었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나.

충무공 말씀이신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이 한 말씀 생각해 보세.

갑오년(甲午年, 1894) 녹두장군 동학군이 올린 횃불, 그 횃불이 밝힌 기치,

—사람 목숨 죽이거나 재물손상 하지 말 것.

—충효를 다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일본 오랑캐 내쫓아 성도(聖道)를 밝힐 것.

—서울로 들어가서 권·귀를 없앨 것.

4대강령 빛부셨지. 이 모두 가림주구(苛斂誅求) 외세침략(外勢侵略)에서 사람다운 사람살이 되찾아 지키자는 횃불 기치 아닌가.

전라도 전북 땅 이 땅 누려 삶을 가꾼, 이 땅 선인들의 아름다움이며, ‘미친바람’ 다스린 슬기여, ‘검은바람’ 이겨낸 용맹이며, 이 슬기 이 용맹에 ‘반역향’

을 덮쳐우다니 이를 말이랄 수 있겠는가.

[6]

친구여, 때묻은 되잖은 말로 괜히 높은 언성이었어, 자, 차 한 잔 다시 들자구. 이 고장 음식자랑을 빠뜨릴 수 있겠나.

중국의 옛 역사책 『후주서(後周書)』·『수서(隋書)』·『구당서(舊唐書)』의 「동이전(東夷傳)」 ‘백제조’ 살펴보면 한결같이, 백제 땅 물산풍부 들고 채소·육류 맛있었다 했네.

전주에 전해 오는 고로(古老)들 이야기에도,

—‘관불여리(官不如吏) 이불여기(吏不如妓) 기불여음(妓不如音) 음불여식(飲不如食)’

이랬지. ‘수령 벼슬아치들 토박이 아전만 못하고, 아전들은 기생들만 못하고, 기생들은 음식풍류만 못하고, 음악은 음식만 못하다’는 것이야. 아, 그래,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

—식재전주(食在全州)

를 말하지 않든가.

어느 때부터였던가, ‘전주팔미(全州八味)’란 말 전하기도 하지.

—‘기린봉 열무·신평리 호박·한내 무·상관 게·남천 모자·선왕골 파ரச이·대흥리 서초(西草)·오목대 황포묵’

오늘엔 사라진 것도 있으나 이 여덟 가지라네.

가람(이병기)께서는 지난 세기의 50년대 초, 다음 시조를 읊기도 하였지.

—‘선왕골 파ரச이는 아직도 아니 붉고, 기린봉 열무 8미의 하나라지, 배급 탄 안남미(安南米) 밥도 이 맛으로 먹히네,’

전주의 먹거리감이 시의 흥결을 돋운거야.

생태계의 변화 따라 먹거리감들 달라졌대도, 전주의 콩나물국밥 콩나물비빔밥은 지금도 한정식과 더불어 ‘식재전주’ 자랑일레. 수필가 김우현(金于玄)은, 어느 가을이었던가, 전주길 한정식 상차림 보고, ‘아! 이진 예술의 극치로군’ 재탄 삼탄이었다네.

전주를 벗어나서 전북의 어느 시·군 어느 식당 들어가도 수저 저분 보내보면, ‘맛 없어 못 먹겠다’는 미식가(美食家)들 못 보았어.

남원의 추어숙회·부안의 백합죽·고창 풍천장어구이 맛을 찾아 나섰다면, 토속 술 춘향주(春香酒)·팔선주(八仙酒)·복분자주(覆盆子酒)도 잊지 마소.

토속주 이야기라면 전주의 이강주(梨薑酒)·이미주(梨米酒), 완주의 송순주(松荀酒)·송죽오곡주(松竹五穀酒), 익산의 천지주(天池酒), 정읍의 단풍주도 그 고장의 맛이거니, 꼭 술꾼 아니라 해조 반주 한 잔 입안에 돌려볼 만하다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도 있거니와, 한 고장의 맛은 그 고장의 문화라는 말도 있거니, 전북의 음식 맛을 즐기며 전북문화 전통도 생각해 볼 일 아닌가.

7

전북의 아름다움 모두어 생각하면, 이 고장 산수 같은 아늑함과 부드러움, 선인들 돌레와 나누어 온 맑고 밝은 빛이라네,

아늑함과 부드러움 정서적인 것이라면, 맑음과 밝음은 정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서 이 정신이 바로 전북의 아름다움 이뤄 왔다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 낱았다고만 할 것인가. 저 정서로 하여 전북 예술 꽃이 피고, 저 정신 꽃대로 하여 전북 기풍(氣風) 햇불이었지 않은가.

뉘라 하여 제 고장에 대한 애착 없으리만, 아름다운 전북 이 고장 생각하면, 전북의 토박이인 것이 이리 자랑일 수 없다네.